

저축하면 손해?... 서민 재테크 비상

저금리 기초 지속... 은행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

절세형·투자 상품 주목... '코스닥벤처펀드'도 관심

국내 실질금리(수신금리에서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뺀 것)가 떨어지면서 투자자들이 투자처 찾기에 분주하다.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할 때 은행 예·적금 상품에만 의존할 경우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면서 자산이 많지 않은 서민층도 재테크에 관심을 갖는 모양새다. 최근 출시된 코스닥벤처펀드에 수천억원의 자금이 몰리는가 하면, 은행들은 돈을 찾아 주식·펀드, 부동산 시장으로 빠져나가는 고객들을 붙잡기 위한 '우대 금리' 상품을 앞다퉈 선보이고 있다.

전문가들도 예금만 고집할 게 아니라, 절세형 상품이나 예금 금리 외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 상품에도 관심을 가질 것을 권하고 있다.

◇은행에 돈 맡기면 손해? = 1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금리(신규취급액 기준 가중평균 금리)는 연 1.56%였다.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1.9%인 점을 감안하면

그 차이인 실질금리는 -0.34%다. 가중평균 금리 자료는 처음 작성된 1996년 이후 실질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면 예금하는 것이 물건 사두는 것보다 손해인 셈이다.

실질금리는 은행이 고객에게 지불하는 이자(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제외한 금리로, 이자율보다 물가가 더 큰 폭으로 올라 실질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면 예금하는 것이 물건 사두는 것보다 손해인 셈이다.

금융권에서는 예금은행의 총 예금(정기예·적금, 수시입출식 요구불예금 등) 증가율이 2013년(2.0%) 이후 최저치인 5.2%에 머물렀고 가계 총 예금(600조1천115억원) 증가율도 2007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3.3% 늘어나는 데 그친 점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분석한 지난해 금융기관 수신 증가 규모(5조561억원)도 전년(6조 2301억원)에 +5조 561억원에 걸쭉 감소했다.

경제계 안팎에서는 저금리 기초가 지속

되고 한국은행이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0%까지 전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 금리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푼이라도 높은 금리 찾아라 = 은행들은 빠져나가는 고객들을 붙잡기 위한 '우대 금리'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연 2%대 상품이 주를 이루는데, 자금을 오래 묶어 놓지 않고도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상품들이 인기다.

광주은행이 내놓은 '스마트모아Dream 정기예금'의 경우 최소 가입금액을 100만원 이상인 인터넷·스마트폰뱅킹 가입 전용상품으로 최고 2.22%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또 쓸쓸한마이콜예금의 경우 스마트폰으로 100만원 이상 1년 간 가입하는 데 최고 2.1%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신한은행의 'KBO리그 정기예금'은 가입금액 300만원 이상으로 최고 2.30%의 금리를 적용한다.

정기예금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제2금융권도 관심을 가져볼만하다. 북동신협은 경우 3년 정기예금 금리로 2.40%를(2년 2.35%), 3년 정기적금 금리로 2.50%를 제공한다. 흥보 현수막을 내걸었고 금남로 JT에서저축은행도 12개월 정기예금 금

리로 2.6%를 제공한다는 안내문을 내걸고 고객을 끌어모으고 있다.

전문가들은 금융감독원의 공식사이트인 '금융상품한눈에'를 통해 지역별 은행, 저축은행들의 금융상품과 금리를 비교한 뒤 우대 조건을 잘 챙길 수 있는 상품을 찾아 가입할 것을 권한다.

◇코스닥 투자상품도 관심 = 젊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코스닥벤처펀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코스닥벤처펀드는 펀드 자산의 50% 이상을 벤처기업이나 벤처기업에서 해제된 후 7년 이내의 코스닥 상장 중·중견 기업이 발행한 주식 등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지난 5일 출시 이래 10일 기준 5693억원의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3년 이상 투자 시 투자자별로 투자한 모든 코스닥벤처펀드의 합계액 중 3000만원까지 10% 소득공제(한도 300만원)를 받을 수 있고 코스닥 신규 상장 공모주식의 30%를 우선 배정받는 혜택도 누릴 수 있는 점 등으로 가입자가 몰리며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게 증시 전문가들 분석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에너지밸리 키워 지역경제에 기여"

김종갑 한전 사장 취임 "수익성 개선 위한 비상경영"

김종갑 한국전력 대표이사 사장은 13일 오전 전남 나주 한전 본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제20대 한전 사장으로서 경영 방침과 포부를 밝혔다.

김종갑 사장은 취임사에서 "무엇보다 수익성 개선을 위해 기존의 원가절감, 투자수익성 향상 노력과 더불어 회사운영 전반에 걸쳐 추가적인 조치의 필요성 점검을 당부했다. 이와함께 수익성이 구조적으로 개선되는 시점까지 '비상 경영'을 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한전이 공익성과 기업성이 조화롭고 균형있게 발전되는 '공기업'이 되기 위해 공공성을 추구하되 '원가효율성'이 있어야 하고 '주주이익'을 도모하되 '국가이익'에도 부합하는 길이어야 할 것임을 당부했다.

김 사장은 또 에너지전환 정책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더 노력할 것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밀한 실행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한전이 에너지 부문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프로젝트 이행 역량을 가지고 있다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부단한 노력을 당부하면서 원전수출, 기타 에너지 사업수출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특히 한전이 주도하고 있는 에너지밸리를 성공적으로 키워서 지역경제에도 기여해 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사장은 "투명, 준법, 윤리경영, 환



한국전력 제20대 사장으로 취임한 김종갑 신임 사장이 취임식에서 경영방침을 밝히고 있다. <한전 제공>

경, 건강, 안전경영을 기본방향으로 제시하고 원활한 소통이 중요하다"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고 문제나 개선점을 미리 미리 해결해 나갈 것과 수평적 칸막이를 줄이기 위해 과도한 의견, 불필요한 조직과 절차도 줄이고 일 중심으로 움직이는 회사가 되게 할 것이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국민 3명 중 2명 꼴

실손의료보험 가입

우리 국민 3명 중 2명꼴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122%로 적자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이력 내용 등을 담은 지난해 보험사 실손의료보험 현황을 공개했다.

2017년 말 기준 개인실손보험 계약 수는 3419만건으로 전년 말(3332만건) 대비 2.6%(87만건) 증가했다. 국민 5178만명의 66% 수준이다.

실손의료보험 중 손해보험사가 보유한 계약은 2787만건으로 81.5% 점유율을 기록했다. 생명보험사가 보유한 계약은 632만건으로 18.5% 수준이다.

기본 계약에 도수치료나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MRI 등 특약을 붙일 수 있는 신실손보험 계약 수는 168만건, 노후실손보험은 2만9000건이다.

지난해 개인 실손보험의 위험 손해율은 121.7%를 기록, 2016년의 131.3%보다 9.6%포인트 낮아졌지만 여전히 100%를 넘는다. 자기부담금이 없는 옛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131.5%로 평균을 상회한다.

보험료 수익은 7조4071억원으로 1년 전 대비 15.4%(9861억원) 증가했다. 발생손해액은 7조5668억원으로 전년 대비 8.5%(5945억원) 늘었다. /연합뉴스



한전KPS '감성 안전 힐링캠프' 한전KPS(사장직무대행 맹동열)는 15일 국민나주병원과 담당 일대에서 '2018 Emotional Safety(감성 안전) 힐링캠프'를 열고 참가자들에게 맞춤형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했다. <한전KPS 제공>

광주, 토지경매 낙찰가율 119.7% 전국 최고

광주 토지 경매에 대한 관심이 높다.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게 형성되는가 하면, 경매 참여자도 꾸준한 것으로 분석됐다.

15일 부동산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이 발표한 '3월 지지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에서 지난달 진행된 토지경매(31건) 중 낙찰된 14건에 대한 낙찰가율은 119.7%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광주 토지경매 낙찰가율은 올 들어 3개월 연속 100%를 넘어섰고 경매 응찰자도 4.0명에서 10% 늘어난 4.4명을 기록하는 등 참여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광주 토지 경매는 31건이 진행돼 14건이 낙찰됐다. 이 중 8건의 낙찰가율이 100% 이상을 기록했다. 특히 서구 서창동 소재 밭 2468㎡가 감정가의 117%인 3억6170만원에 낙찰, 눈길을 끌었다.

주거시설은 111건이 경매에 나와 54건이 낙찰됐다. 낙찰된 54건 중 아파트 및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17건의 낙찰가율이 100% 이상을 기록했다.

남구 봉선동 봉선더빌2단지 아파트(156㎡)는 감정가(6억6200만원)의 144%인 9억5000만원에 낙찰돼 최고가 낙찰 물건에 포함됐다.

전남 토지 경매시장은 낙찰가율이 전월 대비 16.2%포인트 오른 106.7%를 기록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현대차 '현대 상용차 멤버십' 출시

주유비·소모성 부품 할인

다양한 맞춤형 혜택 제공

현대차는 상용차 고객 특화 프로그램인 '현대 상용차 멤버십'을 출시했다.

멤버십 프로그램은 현대차 상용차 고객이 현대카드를 통해 멤버십 카드를 발급받으면 주유비 할인, 소모성 부품 할인, 멤버십 가입 선물 제공 등 다양한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화물차 운전자의 경우 유가보조카드로도 멤버십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적용 차종은 현대차 중·대형 트럭 4종(마티트·메가트럭·뉴파워트럭·엑시언트)으로, 본인 명의 차량을 보유했거나 실차주 증명이 가능한 개인 고객이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상용차 멤버십 가입자는 GS칼텍스와 현대오일뱅크 화물차 우대 주유소에서 멤버십 신용카드로 결제 시 ㄹ당 25원에서 최대 110원, 월 최대 4000 ㄹ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 현대모비스 상용 대리점에서 엔진오일, 에어필터 등 8종의 소모성 부품에 한해 멤버십 카드로 구매하면 7%의 현장 할인이 적용된다.

현대차는 2018년형 이후 신차를 구매해 멤버십에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안전 카메라 세트와 여행용 패키지, 차량용 액세서리 등 멤버십 가입 축하 선물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10	11	12	18	24	42	27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 일치					1,082,947,993	16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43,102,408	67
3	5개 숫자 일치					1,308,501	2,207
4	4개 숫자 일치					50,000	107,980
5	3개 숫자 일치					5,000	1,814,300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산수오거리)

大山 프리모 남녀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 시술 1만여명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아파트 상가2층
062 673 5858(모발모발)